

W_F_048

저승 갓다온 할망

2016년 12월 10일, 제주시 이도1동 윤성인씨 댁, 이현정 조사.
윤성인(여, 1930년생, 제주시 이도1동)

[조사자] 그 저승 갓다온 할망 그때 얘기 들어낫던 헷지예?

[제보자] 예.

[조사자] 예, 그 할망이 어딨 할망이렌 헉디가?

[제보자] 맹월 할머니.

[조사자] 한림 맹월?

[제보자] 응, 한림읍 맹월.

[조사자] 음, 그 할머니는 어떻 헨?

[제보자] 그때 막 노인네 할머닌다. 할머니가 살아가면서 웬롭게 살았던 모냥이라.

나는 그때 젊은 때고 철 모른 때고,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잡수고.

경 헉디. 우린 점방허니까, 할무니가 날 촛아와. 경허믄 밥 헹(웃음), 할머니가 데리곡, 할머니가 앗앙 놀문서. 그때 우리 애기덜은 어린 때곡 허믄 옛날 얘길 헤 줘. 겐디. 아이를 나니까, 아덜을 둘을 묻엇인디. 훈 다섯 설 요섯 설, 일곱 설쯤 나며는 죽더레.

게난, 그때에, 그 당시는 미녕에 파란 물을 들여그네. 두루메기를 헨 입전 묻엇 고렌이. 그때, 그 묻었는데, 할머니가 죽었어.

죽었는데, 가문서 보니깐, 그 맹월 나이든 양반덜 돌아가신 양반덜은, 책상에 앗안 사무 보는 것도 봐졌고, 다 봐도 모른 체허고. 또 가다보니깐, 당신 그, 아덜네 둘이가 꽃밧디 물을 주더레.

물을 주는데, 철주망은 이렇게 쳐졌곡 보니깐 아덜 둘이 물을 젠, 할무니는 반 가웠는데, 본 체도 안 허고. 거난 또 그디서 가다보니까, 강아지가, 히얀 강아지가 헌들헌들 할무니 앞에 나선 걸어. 게난 할무니는 그냥 그 강아지만 따랑 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잇더레. 다리가 잇는데, 그 다리를 건너 가다가, 다리, 발이 삐득 허니까 그냥 물로 털어진 거야, 할무니가.

[조사자] 물로 털어전?

[제보자] 응, 물로 털어전 또랑으로, 그 물 흘르는 디로 떨어지니깐, 깜짝 놀랜. 것이 깨어 나니깐, 삼일동안 죽었단 살아낫는데. 깨어난 보니깐 막 관에 들여 놓는데. 복장은 뚝뚝한 거지게.

[조사자] 아, 복장은 아, 뚝뚝하고.

[제보자] 응, 죽은 거라. 죽었는데, 복장이 뚝뚝하니까, 관을 뚜껑이를 못 덮으고 기다리는 거.

[조사자] 식을 때까지예.

[제보자] 응, 식을 때까지. 겐, 깨어낭 보난 그렇게 허더레.

[조사자] 아, 그문 그, 할머니는 그 후로는 오랫동안 살당 죽었인가?

[제보자] 훈 멧 년 살았일 거라. 뎅이단 나이든 할머니난게.

- 핵심어 : 저승, 한림읍 명월리, 할망, 미녕, 두루메기, 꽃밧, 히얀 강아지, 다리, 물, 관